

보도설명자료

(‘13. 5. 3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피크시간대 기업체 전기요금 3배” 검토

(‘13.5.29, MBC, 연합뉴스, 머니투데이, 세계일보, 한국경제(인터넷판) 등)

1. 기사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는 “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전기요금의 3배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”고 밝혔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하계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을 검토 중인 ‘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’는 피크일에 현재 적용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*의 차등률이 확대되는 선택형 요금제로,

※ 현재 하계 중 시간대별 차등요금 차등률(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 대비 최대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 비율)은 3.2~3.3배 수준

- 피크일·피크시간대에는 현재보다 할증된 요금을 적용하고 비피크일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여, 피크일 피크시간대 전력부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임.

- 동 요금제도는 ‘선택형’으로 전기소비자의 전력사용패턴, 부하절감 여력 등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, 전력사용자의 부하절감 노력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.

- 현재 타 수요관리제도와 연계하여, 가입대상, 차등률 등을 검토 중이며, 6월 중 적용 대상 모집 후, 7~8월 중 적용할 계획임.

※ 관련 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종철 과장(02-2110-4660)

성보경 사무관(02-2110-4662)